

현장시선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에 지역시민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원희룡 지사가 참여하는 등 산업부가 이번 대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 최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핵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산업부도 제주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상황이 근 미래에 육지부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내용에 담겨있지 않다보니 도리어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내용도 그대로 실려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은 제주에 전기가 남아돌기에 잉여전력을 많이 소비해 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생에너지가 커나갈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와 반하는 전기과소비를 부추기는 대책이 들어있다.

전반으로 최대전력수요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 제주지역에 1483MW의 발전설비의 약 65%가 화력발전으로 비중이 상당하고, 화력발전은 2017년부터 3년간 연간 100MW씩 늘어났다. 이렇듯 화력발전설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눈감고 전기소비를 늘리거나 육지부로 전기를 보내자는 논의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사설

제2공항 강행 천명, 도민갈등 더 꼬인다

제2공항 문제로 제주사회가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한 제2공항에 대해 강행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계기로 갈등이 풀리기 기대했으나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은 찬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깔아뭉개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도민의견을 거역한 원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마당

협업 실종된 제주도의 일방적 조례 추진



오 임 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이에 제주경찰은 협의없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맞춰 수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전부 불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도 불수용 이유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뉴스-in

원 지사 “재난 함께 헤쳐나가야...”

동일본 대지진 행사서 발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주도와 일본의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농협 산지유통센터마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만감류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로, 앞으로 출하물량이 늘어날 경우 일부 가격 인하가 우려.
제주농협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산지에서 만감류 물량 소진 해기가 나오면서 농협 산지유통센터마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만감류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책임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경찰청의 합의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도는 이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제주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예고하는 비상시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만감류 가격호조 여부 관심

○...제주도가 3~4월 고품질 한라봉과 천혜향을 농협계통출하하는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가격 호조세가 유지될지 여부에 관심.

대응협의체 청소년 용돈 지원

○...대응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용돈지원사업을 추진. 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사업을 통해 가계내 개인의 정기 기부금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생계급여수급 가정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3월부터 용돈을 지급.

‘포트홀’ 비상, ‘만만디 행정’ 언제까지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겨울 제설제로 갈라진 도로에 스며드는 빗물로 폭 파이는 포트홀은 지난 겨울 유독 추운 탓에 도심지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로 무척 많아졌다. 포트홀이 주행 차량의 파손과 타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운전자들 불안이 이만저만 아니다. 행정이 ‘예산타령’으로 차질과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

상 안고 있다.
매번 예산 부족으로 보수공사가 한참 더디지는 행정의 대응이 문제다. 제주시는 올해 도로보수 예산에 43억여원 뿐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권 예산에 많은 대상을 하려다보니 대부분 포트홀 보수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매일 수 많은 통행차량들의 안전을 방지할 수는 없다. 제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포트홀 도로 일구기만 보수 방식이 아닌 포트홀만을 메우는 보수공사 예산마저 마련 못할만큼 빈약한 재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 고
제주도형 로타리클럽 장공삼(장미수산 대표, 향년 67세)이사께서 2021년 3월 11일 08시 25분 지병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 고
고창용(자영업)·창홍(삼성SDI 부장) 아버지 제주고공 의만(前 초등교 교장·향년 85세)께서 서거 2021년 3월 11일 06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 고
김수열(前 경찰공무원) 어머니 경주 김씨 의봉(향년 101세)께서 서거 2021년 3월 10일 09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추원공 병우(향년 6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수 단열 우레 탄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